For the Next 30 Years of 'Psychoanalysis'

Jee Hyun Ha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정신분석, 다음 30년을 위해서

하 지 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한국정신분석학회의 공식 학술지 '정신분석' 30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처음 연 1회를 발간하였고, 1997년부터 연 2회로 증간하여 유지하다, 2015년부터 연 3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 4회를 펴내는 것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신분석, 정신역동, 정신치료와 관련한 독창적 연구를 담은 원저나 광범위한 리뷰를 진행한 종설뿐 아니라 서평, 필름 리뷰, 국제학회 참관기, 외국 정신분석가 초청 세미나 후기와 같이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원고를 30년 동안 쉬지 않고 모두 500편 이상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인접 학문 분야에서 유례가 없는 성과라 믿으며, 그 결과 2009년 Korea Med에, 2016년부터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가 된 바, 한국 정신분석학계에서 독보적인 학술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업적은 초대 간행위원장 황익근(1990~1991)을 시작으로 김현우(1992, 1994), 이희(1993), 한진희(1995~1998), 이병욱(1998~2004, 2007/1), 조두영(2005), 김혜남(2006), 반건호(2007/2~2015) 회원까지 우리 학회와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전임 간행위원장 및 간행위원회 위원들의 노

고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30권 3호에서는 30권 발간을 기념해서 1990년 1호부터 지난 호까지 실린 모든 종류의 원고를 저자별 색인집으로 만들어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뿐 아니라 국내의 정신분석 관련 전문가, 해외의 정신분석가까지 다양한 저자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수많은 저자와 제호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정신분석' 학술지 자체로서의 가치 외에도 '정신분석'이 정신의학계뿐 아니라 인접 학문 영역에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 학술자료를 쌓아놓은 창고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색인집에 실린 자료 대부분은 학술지 누리집(<http://jkapa.org>)에서 pdf 및 html 원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에서 독보적인 정신분석 및 정신치료와 관련한 학술지로 지속되기 위해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뿐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ORCID ID

Jee Hyun Ha: <https://orcid.org/0000-0002-0973-1139>

Address for correspondence: Jee Hyun Ha,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29, Korea
Tel: +82-2-2030-7569, Fax: +82-2-2030-7748, E-mail: jhnha@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